

# 돈 끼호떼 작품 속에서 본 두 여성상

## -계몽주의시대와 현시대를 중점으로-

### I. 서론

### II. 본론

#### 1. 여성상이란?

##### 1-1. 여성상의 정의

##### 1-2. 여성상의 변천과정

#### 2. 『돈 끼호떼』 소설 속에서 나타나는 두 시대의 여성상

##### 2-1. 『돈 끼호떼』 소설이 쓰인 시대상 특징

##### 2-2. 계몽주의 시대의 여성상

##### 2-3. 현시대적 여성상

### III. 결론

## I. 서론

『돈 끼호테』는 스페인의 소설가, 시인, 극작가, 군인인 미겔데 세르반테스에 의해 쓰였다. 미겔데 세르반테스는 스페인 문학사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로 여겨지고 있으며, 특히 그는 스페인 문학에서 최초로 페미니즘적 사상을 보여주는 작가<sup>1</sup>라고 할 수 있다. 그가 가진 사상들은 그의 여러 소설 속에서 발견할 수 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돈 끼호테』 속에 시대를 대표하는 여성상과 그렇지 않은 여성상을 발견할 수 있음을 통해서 알 수 있다. 미겔데 세르반테스는 그 당시 사회의 분위기 속에서 형성된 여성상과 뿐만 아니라 현시대적인 여성상을 나타내기도 했다. 그의 이런 면모는 많은 찬양을 받기도 했고, 현시대를 살아가는 여성의 시각에서 바라봤을 때 많은 의의를 남기기도 한다.

현재 우리나라 여성의 이미지는 변화하고 있다. 이로 인해 과거 시대의 사람들과 현시대 사람들 간의 생각의 차이는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이런 차이 속에서 현대의 여성들은 과거 여성의 이미지를 강요당하기도 하며 자신의 이미지를 만들어나가는 방법에 대한 자유를 억압당하기도 한다. 한 예로, 농촌에서는 이전 시대의 여성의 이미지인 ‘시부모님을 모시고, 농사일하며, 남편의 말을 잘 듣는 며느리’를 현시대 여성에게 요구하곤 한다. 이런 강요가 심해질 경우 ‘고부 갈등’과 같은 사회적인 문제로 이어지기도 한다.

우리나라 여성의 이미지가 과거시대와 현시대 사이에서 차이가 발생하면서 가장 논란의 중심에 있는 것은 ‘여성상’이다. 필자는 세르반테스가 『돈 끼호테』 소설 속에서 나타낸 각각의 여성상을 분석하고 저자의 의도와 끝으로 이러한 여성상이 현시대를 살아가는 여성과 남성에게 어떤 의의를 남기는지를 말하고자 한다.

## II. 본론

### 1. 여성상이란?

#### 1-1. 여성상의 정의

여성상의 사전적 정의는 ‘여자의 모습이나 그것을 표현한 그림이나 조각’ 또는 ‘여자로서 갖추어야 할 모습’이다. 즉, 여성상은 ‘여성의 이미지’로 말할 수 있으며 ‘여성의 일부 혹은 전체적인 시각적 이미지’를 의미하고 있다. 이러한 이미지는 눈에 보이는 이미지뿐만 아니

---

<sup>1</sup> 박철 (2015). 「돈키호테에 나타난 페미니즘」, 중남미연구, 34(1), 125-144. 16쪽

라 추상적으로 관념의 이미지가 될 수도 있다.<sup>2</sup> 소설 『돈 끼호테』에서는 주로 관념의 이미지를 통해서 여성상을 나타내고 있으며, 필자는 이에 대해서 긴밀히 다뤄보고자 한다.

관념의 이미지에 대한 대표적인 예시로는 ‘신사임당 여성상’이 있다. 신사임당의 여성상이란, 집안일과 살림을 꼼꼼히 하며 남편의 내조를 잘하는 전형적인 ‘현모양처’를 의미한다. 이는 과거 시대를 대표하는 고정적인 여성상이다. 반면에, 현시대의 여성상에 대한 대표적인 예시로는 ‘도전적이고 진취적인 여성상’이 있다. 이는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할 줄 알고 자신감 있는 모습으로 당당하게 살아가는 여성들의 모습을 일컫는다.

시대가 바뀌면서 여성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여성상은 많은 변화를 거쳐오고 있었다.

## 1-2. 여성상의 변천과정

다음은 시대별로 여성상의 변천 과정을 설명한 것이다.

- ① 선사 시대~고대 시대: 재생산을 하는 여성상
- ② 초기 기독교 시대~중세 시대: 순결을 지키는 여성상
- ③ 르네상스 시대: 외적으로 성숙한 여성상
- ④ 계몽주의 시대~빅토리아 시대: 순결과 정절을 지키는 여성상
- ⑤ 현시대: 도전적이고 진취적인 여성상

다음은 선사시대부터 현시대까지 변화된 여성상의 특징을 설명한 것이다.

선사 시대의 여성상은 민족 신화를 통해서 알 수 있다. 대개 토지가 어머니로 등장할 뿐만 아니라, 생산, 풍요, 다산의 기원의 신도 역시 여성적인 요소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 여성의 가임 능력에 대한 숭배가 있었음을 통해서 여성상이 ‘재생산의 기능’을 대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고대 시대의 여성상은 당시 여성의 위치가 아이를 생산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것을 통해서 선사 시대와 동일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그리스의 경우 관념적 이미지로 재생산의 기능으로 고정된 여성상이 점차 외적인 이미지로 바뀌게 되면서 아름다운 여성이 대표적인 여성상으로 나타났다.

---

<sup>2</sup> 신소연, 「잡지광고에 나타나는 ‘여성상’의 사회반영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4쪽

초기 기독교 시대부터 중세 시대에는 이브와 마리아로 여성의 순결이 이분화되면서 여성의 순결을 매우 중요시했다. 이로 인해 순결을 지키는 여성이 점차 당 시대를 대표하는 여성상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르네상스 시대에는 에로티시즘이 등장하면서 이전 시대와는 다른 여성상을 가지게 되었다. 주로 여성을 성적인 측면에서 바라보게 되면서 외적으로 성숙한 여성이 그 당시의 대표적인 여성상이 되었다.

계몽주의 시대는 중앙집권화와 성의 세속화가 시작되면서 여성에게 ‘순결 이데올로기’를 강조했다. 이로 인해 순결과 정절을 잘 지키는 여성이 대표적인 여성상이었다.

빅토리아 시대 역시 여성의 순결을 중요시하면서 계몽주의 시대와 같은 여성상을 가졌다.

현시대로 들어오면서 여성상이 크게 변화했다. 자신의 의견을 명백하게 표명하고, 자신의 의지와 자유를 지키는 여성이 대표적인 여성상이 되었다.

## 2. 『돈 끼호테』 소설 속에서 나타나는 두 시대의 여성상

### 2-1. 『돈 끼호테』 소설이 쓰인 시대상 특징

본격적으로 『돈 끼호테』 소설 속에 나타나는 두 시대의 여성상을 적기에 앞서 돈 끼호테 소설이 쓰인 시대의 특징을 알아보는 것이 필요하다.

계몽주의 시대에는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근대적 국가 체계가 형성되기 시작하는 등의 사회적 변화가 있었다. 이런 변화 속에서 여성에 대한 인식 역시 사회변화의 소용돌이 속에 있었다. 르네상스 시대에는 외적으로 성숙한 여성상이었다면, 계몽주의 시대는 성의 억압이 더 강해지면서 여성상 또한 변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계몽주의 시대에는 순결과 정절을 지키는 여성상으로 고정된 것이다. 사회적 변화 속에서 바뀌게 된 여성상은 남성들이 여성은 정숙한 이미지를 지녀야 한다는 고정관념이 생기게끔 했고, 점차 여성상이 고정적으로 변하게 되면서 남성 중심의 문화가 형성되게 되었다.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를 가지고 있던 17세기에 소설의 저자 세르반테스는 자신이 지닌 페미니즘적 성향을 이용하여 현시대적인 여성상을 소설을 통해서 드러냈다. 이로 인해 돈 끼호테 소설에는 두 시대의 여성상이 공존하게 되었다.

### 2-2. 계몽주의 시대의 여성상

다음은 『돈 끼호테』 소설이 쓰인 계몽주의 시대 여성상을 보여주는 문장과 이에 대한 시대의 특징이다.

*“부모님이 생각하시는 모습이 아닌 꼴이 되어 얼굴을 내민다는 건 생각만 해도 너무 부끄러운 일이라 차라리 남이 보지 않는 곳에 영원히 추방되어 살고 싶습니다. 제가 꼭 지키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믿은 그 정절을 잃은 제 얼굴을 부모님이 보시리라는 생각을 하면 차라리 그분들을 안 보는게 나을 것 같아요.”<sup>3</sup>*

이 부분은 도로테아가 돈 페르난도에 의해서 자신의 정절을 잃고 난 후, 돈 끼호테와 찰초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한 부분의 일부분이다. 도로테아는 자신의 정절을 지키면서 돈 페르난도의 구애에도 넘어가지 않았다. 그러나, 돈 페르난도는 자신의 구애에 넘어오지 않는 도로테아의 방에 몰래 들어가 그녀를 품에 업고 안으며 그녀의 정절을 잃게 했다. 그녀는 자신에게 발생한 일을 부모님께 말씀을 드리지 못하겠다고 하였다.

당 시대에 여성상에서의 순결과 정절은 가문의 명예와 이름이 걸려 있을 정도로 매우 중요했다. 그리고 결혼 전 남녀의 잠자리에 대해서는 패가망신의 지름길이자, 여성에게 있어서는 평생의 오명으로 남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안셀모는 명령한 것은 자기 의사이니만큼 여자는 머리를 숙이고 따르기만 하면 된다고 다 그쳤고, 까밀라는 마음은 그렇지 않았지만 그리하겠노라고 대답했다.”<sup>4</sup>*

이 부분은 <호기심 많은 시건방진 친구 이야기>에서 나오는 이야기 중 일부분이다. 안셀모는 자신의 친구인 로타리오를 이용하여 자신의 아내인 까밀라가 정숙한 여자인지를 알아보고자 했다. 다음의 문장은 안셀모의 계략 중 한 가지인 자신이 집을 오랫동안 비운 사이 그녀의 태도를 알아보고자 했을 때 까밀라에게 했던 말이다.

이런 안셀모의 태도를 통해서 알 수 있는 당 시대 여성상의 특징은 남성에게 순종했다는 것이다. 순종적인 여성의 태도는 남성들에게 여성이 자신들의 소유물로 인지할 수 있게끔 했으며, 이로 인해 여성들은 자신들의 의견을 발언하기보단 침묵하도록 강요받아왔다.

*“(...) 순결한 여자들의 정조를 지키고자 방랑기사 제도라는 게 생겨난 거지.”<sup>5</sup>*

---

<sup>3</sup> 미겔 데 세르반테스, “기발한 시골 양반 라 만차의 돈 끼호테1”, 창비, 2005, 431쪽

<sup>4</sup> 위의 책, 513쪽

<sup>5</sup> 위의 책, 146쪽

이 부분은 돈 끼호떼가 도토리 한 줌을 쥐고 황금시대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는 부분 일부분이다. 특히 돈 끼호떼는 황금시대의 이야기를 하면서 정숙한 여자는 정절이 요구되는 데만 암전히 가리면 되었다고 말하면서 방랑기사가 생겨난 이유에 대해서 언급한다.

이를 통해서 당 시대에는 여성들이 주체적으로 자신을 보호하기보단 남성들에게 보호받아야 할 존재로 인식된다는 특징이 있다.

이를 요약하자면, 이 소설이 쓰인 계몽주의 시대에는 여성들이 자신의 순결과 정절을 매우 중요시했음을 알 수 있고, 남성에게 순종적인 태도를 보이며 그들에게 보호를 받아왔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스스로 자신의 순결과 정절을 지키기보단 의무적으로 자신의 순결과 정절을 지키는 모습을 보인다. 여성의 정숙함을 표현하기 위해 여성의 수줍어하는 표정과 홍조를 띠는 얼굴이 상징적으로 사용되었고, 소극적이고 부끄러워하는 여성의 태도는 곧 사람들에게 찬미의 대상이 되었다.<sup>6</sup>

### 2-3. 현시대적 여성상

다음은 세르반테스의 페미니즘적 성향을 이용한 현시대적 여성상을 보여주는 문장과 이에 대한 시대적 특징이다.

*“모두 그리소스포모가 나 때문에, 나의 죄로 고민하다 죽었다고 하는데, 그건 잘못된 생각이지요.”<sup>7</sup>*

*“그대들이 내게 사랑하는 마음을 표시하거나 진정으로 좋아하면 나도 그대들을 사랑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처럼 말씀들 하시는데 (...) 내가 아름다워서 사랑하는 사람을 같이 사랑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생각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sup>8</sup>*

*“제가 의사를 밝혔음에도 그가 아무 희망도 없는 사랑을 밀고 나가며, 세상 풍파에 복수를*

---

<sup>6</sup> 임초롱, 「조셉 라이트 작품에 나타난 계몽시대의 여성인식」,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미술사학과 석사학위논문, 29쪽

<sup>7</sup> 미겔 데 세르반테스, “기발한 시골 양반 라 만차의 돈 끼호떼1”, 창비, 2005, 185쪽

<sup>8</sup> 위의 책, 186쪽

하려고 했다면 그건 정신 빠진 소용돌이 와중에 혼자 빠져 죽은 게 아닙니까?”<sup>9</sup>

이는 아름다운 여성인 마르셀라가 그리소스포모라는 목동의 죽음을 둘러싼 사람들의 말에 대해 자신의 입장을 밝히는 부분 중 일부분이다. 그리소스포모는 마르셀라가 자신의 마음을 받아주지 않자 스스로 목숨을 잃은 인물이다. 그러나 그의 친구인 암브로시오는 남성의 죽음이 마르셀라 때문이라고 한다. 그러나 그녀는 그의 죽음이 절대 자신 때문이 아닌 오로지 그의 선택이었다고 한다.

이를 통해서 현시대적 여성상의 특징으로는 누구의 강요도 없는 사랑을 하는 여성의 모습임을 알 수 있다. 즉, 주체적으로 자신의 사랑을 구성해나가는 면모를 지닌 것이 현시대적 여성상이라고 할 수 있다.

“저는 자유롭게 태어났고, 자유롭게 살고자 이 산과 들의 고독을 선택했습니다.”<sup>10</sup>

이 문장을 통해서 현대적 여성상의 특징으로 자신의 자유를 스스로 찾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즉, 자유를 남에게서 찾는 것이 아닌 주체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다.

“잃어버린 제 정조와 명예가 되살아나도록 그의 몸에 피투성이 문을 열어놓았지요.”<sup>11</sup>

이 부분은 플라우디아라는 여인이 자신의 약혼자였던 비센테 토레야스가 다른 여자와 결혼을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녀의 약혼자에게 복수한 이야기 부분 중 일부분이다. 그녀는 아버지 몰래 비센테와 사랑에 빠졌으며 여자가 아무리 조신하게 지내도 욕망을 풀면 실행에 옮기지 않을 여자는 없다고 했다. 이후 비센테와 약혼을 약속했지만, 그가 다른 여자와 약혼을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분노를 참지 못하고 총을 쏘았다.

이를 통해서 현대적 여성상의 특징에는 용기와 당당함이 보인다. 현시대에서 용기와 당당함이 보이는 여성은 자신의 신념을 명백하게 밝히며 살아갈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현대의 추세는 당당함이 보이는 여성을 선호하는 편인 만큼 이 문장에서는 현대의 풍습에 적합함을 느낄 수 있다.

---

<sup>9</sup> 미겔 데 세르반테스, “기발한 시골 양반 라 만차의 돈 키호테1”, 창비, 2005, 188쪽

<sup>10</sup> 위의 책, 187쪽

<sup>11</sup> 미겔 데 세르반테스, “기발한 시골 양반 라 만차의 돈 키호테2”, 창비, 2005, 710쪽

이를 요약하자면, 마르셀라를 통해서 알 수 있는 현시대적 여성상의 모습으로는 여성이 자신의 삶을 꾸려나갈 권리가 있으며, 강요가 없는 사랑을 할 자유가 있다는 것이다. 주체적인 삶은 현시대 여성상으로 가장 적합한 삶이다. 또한, 끌라우디아를 통해서도 당당함과 용기 있는 여성이 현대적인 여성상의 특징임을 알 수 있다.

### III. 결론

지금까지 돈 끼호테 소설을 통해서 계몽주의 여성상과 현시대적 여성상의 모습을 알아보았다. 이 소설의 저자인 세르반테스를 두고 여러 학자는 ‘여성을 존중할 줄 아는 진정한 작가’<sup>12</sup>라고 언급을 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세르반테스가 이 소설에서 계몽주의 시대의 여성상과 현시대적 여성상을 함께 나타낸 것은 소설을 쓰던 그 시대에 여인을 남자의 소유물로 여기던 사회적 분위기를 비하하고 여성들이 남성들과 동등한 권리를 지닌 진취적인 인물로 여기기 위해서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돈 키호테』 속의 두 시대 여성상은 현시대를 살아가는 여성과 남성에게 많은 의의를 준다.

먼저 여성에게 주는 의의이다. 여성에게 부여된 고정적인 여성상은 존재하지 않으며,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 만들어진 여성상을 반드시 지킬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여성의 삶을 진정으로 지킬 줄 알고 소중히 여길 사람은 오로지 여성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세르반테스가 말했듯 여성은 남성의 소유물이 아니며, 여성 자신의 삶은 그들이 만들어 갈 필요가 있음을 마음속에 새길 필요가 있다.

남성에게 주는 의의로는 여성의 권리를 남성과 동일시하게 봐야 한다는 것이다. 남성 중심의 문화는 현시대에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여성과 함께 공존하며 살아가는 세상인 만큼 남성의 권리와 여성의 권리가 동일시되어야만 한다. 특히, 마르셀라의 말을 통해서 현 시대에서는 자신의 사랑을 여성에게 무조건 강요해서는 안 되며, 여성의 자유의지를 존중해줘야만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여성과 남성의 자유는 동등해야 하며 어느 한쪽으로도 치우치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아야만 한다.

끝으로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

---

<sup>12</sup> 박철 (2015). 「돈키호테에 나타난 페미니즘. 중남미연구」, 34(1), 125-144. 15쪽



“현시대 여성들은 자유의지를 지니고 자신의 삶을 펼쳐나갈 권리가 있다.”

<참고문헌>

미겔 데 세르반테스, “기발한 시골 양반 라 만차의 돈 끼호테1”, 창비, 2005

미겔 데 세르반테스, “기발한 시골 양반 라 만차의 돈 끼호테2”, 창비, 2005

<국내논저>

박철 (2015). 「돈키호테에 나타난 페미니즘. 중남미연구」, 34(1), 125-144.

신소연, 「잡지광고에 나타나는 ‘여성상’의 사회반영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디자인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4쪽

임초롱, 「조셉 라이트 작품에 나타난 계몽시대의 여성인식」,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미술사학과 석사학위논문, 29쪽